

# 학생인권조례 올한 제정되나

지난해 부결...도교육청 학생책임 강화한 수정안 의회 제출

전북도교육청이 학생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학생 인권조례’를 연내 제정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지난해 입법예고한 ‘학생 인권조례안’과 ‘교권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기존 조례안을 수정, 새 ‘학생 인권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 교육청은 기존 학생인권 조례안을 일부 수정한 이번 조례안을 지난 7월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쳤다. 수정 조례안은 5장 51조와 부칙 2조로 짜였다.

지난해 11월 부결된 학생인권 조례안과 비교할 때 큰 틀에서 학생의 인권보장 원칙은 구체화하고, 학생의

책무는 강화하는 쪽으로 변경됐다.

머리·복장 등 용모와 관련해 학생들이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동일 하지만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교장은 학교 규정으로 이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휴대전화 소지와 집회의 자유도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학생 안전,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 규정으로 규제·제한할 수 있다.

체벌에 대해서는 ‘학교교육 과정에서 체벌은 금지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특히 ‘체벌은 교직원이 학생의 신체에 대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

다’는 부분을 삭제했다.

권리뿐 아니라 책무도 강화했다. ‘학생은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교사,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때는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른 책임을 진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아울러 학생인권 교육원을 학생인권 교육센터로 축소 변경하고, 학생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상담과 구제 활동을 하게 될 ‘학생인권 옹호관’도 3명에서 1명으로 줄였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은 학교현장에서 인권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구절초 공원에 활짝 핀 코스모스

정읍시 산내면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을 찾은 관광객들이 만개한 코스모스밭에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정읍시는 14일까지 ‘제7회 구절초 축제’를 연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s@

## 오재승씨 등 4명 ‘남원 시민의장’ 선정

남원시는 10일 ‘남원 시민의장’ 심사위원회(위원장 이환주 남원시장)를 열고 향도의 명예



오재승씨

이복순씨

정석희씨

최국덕씨

를 드높이고 각 부문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수상자 4명을 선정했다.

시는 ▲문화체육장 오재승(90) ▲공익봉사장 이복순(45) ▲산업근로장 정석희(56) ▲효열장 최국덕(52) 씨를 각각 선정했다.

오재승 씨는 교직에 몸담으며 벼지 학생 학업 향상과 노인학교를 운영하느 등 지역 교육발전에 헌신했고, 남원의 역사와 문화적 위상을 높였다.

이복순 씨는 지난 2005년부터 올해

까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 3900만원을 전달하는 등 지역 인재육성 적극 나섰고 있다.

정석희씨는 2009년부터 3년간 탐프루트 시범단지 회장을 역임하면서 포도품질 향상에 주력해 ‘자리산 홍부골 포도’ 명품화에 크게 기여했다. 최국덕씨는 1983년 금지면 하도리로 시집와 29년 동안 연로하신 시부모를 지극 정성으로 섬기며 진정한 효를 실천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 주말·휴일 새만금은 체육행사 한마당

전국 철인 3종 경기·바다낚시·걷기대회 등 풍성

13~14일 군산 새만금에서 군산 새만금 걷기대회, 군산새만금 바다낚시 대회, 군산새만금 전국 철인3종 경기 등 다채로운 체육 행사가 열린다.

(재)군산시 걷기연맹(회장 문재권) 주최로 13일 열리는 ‘제3회 군산 새만금 걷기대회’는 군산 새만금 산업전시관에서 출발, 부안 새만금전시관을 반환점으로 돌아오는 총 66km 코스를 걷게 된다.

같은 날 고군산군도 해상 일원에서 ‘제7회 군산시장배 새만금 전국 바다낚시대회(선상낚시)’가 열린다.

이번 대회는 새만금 방조제로 육지와 연결된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항에서 낚시대회 개·폐회식 행사를 갖는다.

대회 1등에게는 500만 원, 2등 200만 원, 특종상(2명) 각 100만 원, 선단상 100만 원 등 총상금 1000여만 원의 시상금이 전달된다.

또한 14일에는 새만금방조제 일원에서 수영·사이클·달리기의 3가지 종목의 경기를 펼치는 ‘전국 철인3종 경기’가 열린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건전한 체육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물론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새만금이 해양레저 관광지로 발돋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 전북도민 3000명 모여 말춤 춘다

내일 새만금법 개정 기원 ‘터 밝기’

새만금 현장에서 새만금 개발 촉진을 염원하며 전북 도민 3000여 명이 가수 사이의 ‘말춤’을 추는 진풍경이 펼쳐진다.

새만금사업 범도민 지원위원회는 13일 오후 3시부터 부안 방면의 새만금 노출부지에서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 발의와 국회 통과를 기원하는 ‘터 밝기’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응답하라, 2020 새만금! 개정하자, 2012 새특별법’이란 표어를 내걸고 걷기대회나 집회가 아닌 참여형 문화행사로 치러진다.

임실 팔봉농악단의 공연으로 시작되는 행사는 박희순 등 개그맨들의 콩트와 씨니힐 등의 노래 공연으로 이어진다.

특히 참가자 3000여 명이 가수 사이의 강남스타일을 개사한 ‘오빠는 새만금 스타일’에 맞춰 집단 ‘말춤’을 선보인다.

전북도는 새만금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 ▲새만금 개발 전담 기구(새만금 개발청) 설치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 ▲산업단지 조성원가 인하방안 마련 등을 담은 새만금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도내 국회의원들도 이날 말미에 의원발의로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 “격포항·채석강... 부안 마실길 길어보세요”

내달 3일 걷기행사

부안군은 11월 3일 고사포해수욕장 송림광장에서 ‘제3회 부안 마실길 걷기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국의 도보 마니아는 물론 유관기관, 시민·사회단체, 군민 등 20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탐방구간은 고사포 해수욕장에서 출발해 격포항(격포 해남이공원 광장)까지 8km 구간으로 하섬과 적벽강, 채석강 등 번산반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최상의 코스로 꼽힌다.

또한 ‘부안 마실길’ 홍보대사인 연예인 최영준씨가 사회를 맡아 추억의 흔적 남기기, 마실길 풍경화 전시, 마실길 3행시 낭송회 등 다채롭게 진행된다.

군은 그동안 탐방객들에게 불편을 줬던 도로경유 구간을 해소하고 공공 화장실, 출렁다리, 데크다리 등 탐방객 편의시설을 확충했다.

부안군 환경녹지과 관계자는 “이번 걷기행사를 통해 ‘부안 마실길’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탐방길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단신

#### 전주·완주 통합 스포츠타운 완주 조성 확정

전주시와 완주군이 전주시내에 만들 예정이던 스포츠타운을 완주군청 인근으로 옮기기로 했다. 이는 전주·완주 통합의 분위기를 만들려는 방안의 하나로 완주군이 요청했던 사항이며, 10일 열린 전주·완주 통합 용역사업 중

간 보고회에서 사실상 확정됐다. 스포츠타운에는 1종 육상 경기장과 각종 생활체육시설이 갖춰진다. 전주시와 완주군은 통합이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군산 비응향 해안가서 오늘 해안방제 훈련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에 대비한 해안방제 훈련이 12일 군산시 옥도면 비응향 인근 해안가에서 열린다. 훈련에는 군산 해양경찰서를 주축으로 8개 기관과 관련 업체 등이 참가한다. 훈련은 대규모 기름 유출 사고를

가상해서 치러진다. 오염 사고가 발생한 모래, 자갈, 암벽 등 해안가의 특성에 따라 국제기구가 권장한 해안방제 방법을 적용하고 고압세척기·트랙터·굴착기 등을 동원해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 정읍문화원 13일 ‘전국 한문경전 성독대회’

선비들이 공부했던 천자문과 사서삼경 등을 소리 내 읊어 평가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정읍문화원(원장 정창환)은 13일 정읍시 전북과학대에서 ‘제5회 전국 한문경전 성독대회’를

연다. 성독대회에서는 사자소학, 대학, 논어, 맹자, 시경 같은 한문 경전들 예와 격식에 따라 얼마나 정확하게 큰 소리로 운율을 넣어 읽는가를 겨룬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s@

#### 부안 서해웨리호 참사 19주기 위령제 거행

서해웨리호 참사 19주기 위령제가 10일 부안군 위도면 진리마을 위령탑 앞에서 열렸다. 이날 위령제에는 김호수 군수와 박천호 군의장을 비롯한 지역 내 기관장, 유가족, 지역주민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서해 웨리호는 1993년 10월 10일 전북 부안군 위도면 파장금항을 출발한 직후 높은 파도와 거센 바람에 침몰해 타고 있던 승객 292명이 숨졌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평강한의원 이환웅 박사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염종(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코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적향상이나 성격형성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원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곤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원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고 눈이나 인후두가 가렵거나 냄새를 잘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눈물이 흐르거나 머리가 아파오고 피로해지는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가 근질거리면서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를 발작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미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심각해진 것이며 결국 축농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증세가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병이나 만성성통으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근피 등 20여 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콧병치료의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막힌 기운을 풀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환웅 원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10여 년간 비염을 중점적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 만

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삼구채,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가 튼튼해지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한의원의 한약은 작은 환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의원에서 치료하는 약약은 주재료인 참느릅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나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의 이환웅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웅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090204-종-4738호

## SINCE 1988

### 대한민국대표방수제

#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전적이나 덤핑전적은 넣지 않습니다.

무조건적 시공상담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옥상, 외벽 시공사진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도곡 274-5987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 방수제

서울 본사 : 02-454-7722